

2024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4.9.24.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6/10	6	1	13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김영진 위원, 이진희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조형찬 취재편집부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3	-	1	10	-	10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	-	10

다. 전월(8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영시축제 관련 보도> 행사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비평 또는 방향 제시, 지역 경제 유발효과 4000억에 대한 수치 검증 보도가 필요해 보임	영시축제 행사에 대한 분석과 방향성에 대한 보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경제 효과 부분에 대한 검증 보도를 준비중임. <24. 9월 조치>	'24.8월
보도	<저출생 관련 기획 보도> 저출생과 1인가구 등에 대한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기획 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저출생 문제뿐 만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감정과 차별에 대한 기획보도를 준비하고 있음. <24. 9월 조치>	'24.8월
보도	<골령골 피학살자 위령제 보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평화공원 조성 등 매년 반복되는 얘기만 보도했는데 올해의 특징을 잡아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주었으면 함	산내 골령골 관련해서는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적해 주신부분 참고해서 기사에 반영하겠음. <24. 9월 조치>	'24.8월
보도	<외국인 노동자 사망 보도>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우 후속보도가 미흡해 보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길 바람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보도하겠음. <24. 9월 조치>	'24.8월
보도	<충남대병원 파산 이슈 보도> 지역언론에서 충남대병원 파산 이슈를 의뢰진 파업이나 전공의 부족으로 다루는데 세종병원 설립 4천억에 대한 경영 부실 문제도 다뤄주길 바람	충남대병원 파산에 대한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음. <24. 9월 조치>	'24.8월
보도	<기후위기 대응법 관련 보도> 지천명 관련 보도시 지역민의 찬반 여론이 있는 만큼 실제 홍수문제가 해결되는지, 그 위치가 적합한 위치 인지를 먼저 다뤄주었으면 함	지천명 이슈는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있는 상황이라서 환경부의 눈거가 확실한지 검증할 필요 있음. 그 방향으로 보도하겠음. <24. 9월 조치>	'24.8월
교양	<시시각각 타이틀과 자막> 시시각각의 타이틀을 참신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정보 제공 측면에서 자막을 활용해 주었으면 함	제목을 참신하게 뽑아달라는 의견과 자막 활용에 대해 공감하고 제작담당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겠음. <24. 9월 조치>	'24.8월
교양	<대입 관련 토론 2부작> 대입 관련해서 중학생 등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위해 방향성 제시와 변화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시길 바람.	수능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2부작 토론 프로그램을 제작해 달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제작진들과 협의해 제작해 보도록 노력하겠음. <24. 9월 조치>	'24.8월
교양	<프로그램 홍보 관련> 시대공감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가 필요해 보임	시대공감은 9월13일자로 잠시 쉬고 내년 1월부터 시간을 옮겨 다시 시작하는데 그 때 홍보에 신경을 쓰겠음. <24. 12월 조치>	'24.8월
교양	<늘봄 학교 문제> 늘봄 학교 문제는 교육청의 예산 문제도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재로 더 다뤄주었으면 함	소외되는 이웃들과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음. <24. 9월 조치>	'24.8월
교양	<건강플러스 주제 관련> 더위로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맞게 건강플러스에서 계절이나 시기에 맞는 소재를 다뤄주었으면 함.	말씀하신대로 온열질환에 대한 부분은 새겨들도록 하겠음. 또한 여름이나 겨울에는 시의성에 신경을 써서 제작하겠음. <24. 9월 조치>	'24.8월
교양	<오늘M 단체장 출연 관련> 청양군수 출연 관련해서 다른 영상이나 진행자의 보조 없이 15분 정도 발언만 하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데 다른 방식의 고민이 필요함	지난번 지적도 있어서 나름대로 화면을 분할해서 영상을 구성했는데 앞 코너 길이 구성이 좀 짧았음.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쓰겠음. <24. 9월 조치>	'24.8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4년 9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시의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시의사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05.01~26.0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05.01~26.0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05.01~26.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지천택 관련 보도> 지천택 관련 보도가 4건 있었는데 주요 쟁점을 잘 정리했고 다양한 의견들을 균형 있게 잘 다룬 것 같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지역 이슈 집중 보도> 보문산 개발, 태안화력 폐지, 공주보,세종보 등 지역의 여러 이슈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집중 보도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지자체 성과 보도> 충남도 20조 투자 분석 보도는 좋았음. 대전 영시축제도 성과 분석과 관련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알려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 보도>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 보도가 항상 사망했다 까지만 나오는데 정확한 원인과 뒷수습까지 신경을 써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재난 관련 보도> 재난 보도시 지자체의 재난구역 선포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것을 해결해 준다고 했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해 주기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딥페이크 피해 관련 보도> 피해 확산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기술의 문제인지 정보통신망법상 규제가 불가능한 건지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 패널> 주로 남성 패널들이 출연을 하는데 주제 때문에 섭외 한계성은 있겠지만 균형있게 여성들도 출연시켰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라이브라이프사운드> 교양적 요소에 예능 쪽으로 다뤄지면서 수준 높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음. 소리와 음악이 잘 어울리는 게 좋았음. 홍보가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교양	<라디오-우리고향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의 특성상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데 다각적으로 청취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제작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기타 시청자게시판	<뉴스 앵커 교체 안내> 휴가 등의 이유로 7, 8월경에 뉴스 진행자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안내가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2024년 9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손병우 위원장, 김영진 위원, 이진희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조형찬 취재편집부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지금부터 9월 시청자위원회를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 위원님 10분 중에서 6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도국장이 휴가라서 조형찬 취재편집부장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9월 대전MBC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건이 올라왔는데요. 보도 내용 불만 1건 그리고 기타 요청이나 문의사항 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섬교 위원

9월 1일에 게시된 아나운서 진행자 변경에 관한 부분은 저도 궁금했습니다. 휴가 등의 이유로 7, 8월에 진행자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변경된 뉴스 앵커가 따로 안내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안내 멘트를 덧붙이면 시청자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형찬 취재편집부장

이번 경우는 해당 앵커의 결혼으로 인해 2주간 공석이 생겼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진행자가 대체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실 텐데 그때마다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합니다. 라디오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 있기 때문에 휴가인 상황에는 안내 멘트가 나갑니다. 그러나 앵커는 뉴스 전달이 우선이기에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예능 프로그램이라면 직접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뉴스이기에 방송을 통해서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고지하는 정도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다른 시청자 의견이 궁금한 게 있네요. 충남 대전 세종 다 보도한다고 예산 받지 않나요? 왜 대전만 주로 보도를 하냐고 돼 있습니다. 충남 지역도 조금 더 포함해서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의견은 장애 아동 노동 갈취 제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서 확인을 해보시나요?

조형찬 취재편집부장

제보가 많기에 모든 걸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화 확인을 필히 하고요. 특히나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건 의무적으로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제보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일반적으로 MBC도 시청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거나 국가 예산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예산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없이 쓰신 이 분 같은 경우 진위 여부 확인도 쉽지 않습니다. 연락처도 따로 남기지 않으셔서 제보 홈페이지나 제보 전화를 이용하는 쪽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것들은 조형찬 취재편집부장 말씀대로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며칠 만에 완벽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본업도 있으신데 시간 내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는 조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녹화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많고 어제 라디오 공개 방송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의견을 소중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손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정기회의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대전MBC가 60주년 기념행사와 특집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내보내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시청자위원회도 거기에 부응해서 더 열심히 임하도록 분발하겠습니다. 9월 시청자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일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일 위원

9월 한 달 보도와 TV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의견들이 반영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합니다. <시시각각>과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도 벌써 자리를 잡아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우선 지천댐 관련 보도가 4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산림자원연구소와 지천댐 간 빅딜 의혹 제기 기사가 있었습니다. 2차 설명회 개최 후에 설명회 진행 건과 규탄 관련 보도 그리고 집중 취재가 이어지면서 주요 쟁점을 알리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런 집중 취재를 통해서 주요 쟁점을 정리한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앞에 보도만 본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집중 취재를 통해서 충남도의 설명들도 나오고, 반대대책위의 의견도 같이 균형 있게 잘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시청자 위원회에서 지천댐 위치가 홍수의 원인인지 아닌지도 봐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보도에 잘 다뤄진 것 같아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보도 내용 중 충남도가 주민 찬반이 갈릴 경우에 정무적 판단으로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는 부분이 있던데요. 그런 만큼 시민들뿐만 아니라 언론도 먼저 나서서 지속적인 관심을 줘야 의견이 잘 반영된 정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보문산 개발, 태안 화력발전소 폐지, 공주보, 세종보 등 여러 지역 이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후에 집중 취재가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자체 성과 보도 관련해서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보도자료를 그대로 뿌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자체 성과 보도가 있을 때 그것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분석을 하는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충남도에서 20조 투자 관련 보도가 있는데요. 단순히 “20조 투자를 받았다”가 아니라 두 달 뒤인 9월에 분석을 했죠. MOU 수준의 투자 약속을 과장한 부분과 실투자가 완료된 부분이 2.92% 수준이란 점을 잘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 과정을 주목해주면 지자체도 책임 있게 자기 임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영시 축제 성과 분석과 관련된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역 의원 한 명의 의견이 보도됐는데요. MBC 차원에서도 영시 축제의 성과, 규모 등에 대해서

분석 보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의 성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대전 충남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외국인 노동자 사망건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사망했다 까지만 나오니까. 정확한 원인이라든지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뒷수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재난 보도에 관해서도 말씀 드렸던 것이 있죠. 재난 사실 전달, 지자체의 재난 구역 선포 같은 부분만 알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언론이 봐주면 지자체에서도 더 책임감 있게 수습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9월 13일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보도가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보도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가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나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 줬는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지 포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수해가 여전히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를 보다 보면 온라인 뉴스는 보도된 것과 다르게 뒤에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반박을 하거나 정정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 추가적으로 넣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TV방송으로 나가고 난 뒤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보도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은 용산초 교사 순직 1주년을 맞아서 시의적절한 주제로 토론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역 언론은 지역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도 많은 논쟁거리들이 있잖아요. <시시각각>에서 첫 번째 토론이었던 의대 인원수 관련된 이슈는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나오고 치열했었는데요. 나머지 주제는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논쟁거리가 될 수 있더라도 지역에서 갈등 요소가 있는 주제들로 토론을 해나가면 시민들도 자기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률도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는 굉장히 수준 높게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을 보면서 새로 알게 되는 게 많습니다. 교양적 요소가 예능 쪽으로 다루어지면서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어서 느끼는데요. 소리를 하나하나 따서 음악과 어울리게 하는 것에 노력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다양한 프로그램에 걸쳐서 자세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성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섭교 위원

이번 달에도 라디오를 집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지역 공동 생존 프로그램으로 했던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MBC에서 만드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시청자와 청취자들에게 알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대전MBC의 7개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시대공감>이 종영되고 6개가 있는데 12회로 기획된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을 3개월에 걸쳐 들었는데요. 지역 상생에 대한 것들을 6개 지역 MBC가 공동으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각각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반 청취자나 국민들을 상대로 질문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우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11가지 주제가 지역이 어떻게 소멸되는지, 국가 간의 위기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고요. 해결책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이 함께 얘기를 해주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저만 듣는 게 너무 아까워서 대전MBC 유튜브를 검색해 봤는데요. 채널을 보시면 대부분 보도되었던 걸 다시 올려놓은 상황인데 라디오는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가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8일부터 이번 달까지 12번에 걸쳐서 방송하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위기의 지역 소멸이 왜 국가적인 문제인지부터 교육, 교통, 메가시티, 인구 소멸, 일자리, 지역 청년들, 집, 국토 정책까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문가들도 나와 주셨고 인터뷰를 탄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인터뷰를 따서 올려놓는 것 또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프로그램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를 만들어주신 여러 연출자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요청드립니다.

대전시 교통 정책 관련해서 전국 최초 무궤도 차량에 대한 이야기가 3주 전부터 나오고 있고 중도일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봤었는데요. 대전MBC에서 다뤄진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 문제, 상생 프로그램, 교통에 대한 문제를 짚으셨다면 정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각각>이나 교통 관련 토론 프로그램에서 무궤도 차량에 대한 부분을 올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은 과학 도시이기 때문에 대전MBC에서 이 주제에 관해서는 한 번쯤 다뤄보는 게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한 달도 너무나 잘 들었고 잘 봤고 너무 애써주셨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집중적인 모니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저도 이번에 방영된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 세종시 전의면 편을 봤는데요. 진행자 KCM과

SG 워너비가 나왔어요.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는 특별한 마인드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지역 내 도서관 관장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KCM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준 게 좋았어요. 출연진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부부를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SG워너비가 오는 줄 알았으면 다른 음악을 연주했겠다고 말하는 부분을 진실성 있게 담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 시청자들이 친밀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회와 다음 출연진에 대해 예고도 이뤄져서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도 충족되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에 촬영물 디페이크 피해 뉴스가 여러 차례 보도되었는데요. 디페이크 피해가 3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범죄 피해가 많이 확산되었어요. 그 요소 중에 텔레그램이라는 앱이 있어요. 텔레그램이 개인의 보안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은밀함이 범죄적인 요소를 감추기 위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일반인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텔레그램에 AI 촬영물을 합성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디페이크 피해 확산이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를 입은지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한 명 얘기하니까 여러 학교 피해자가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기술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피해자들이 더 많이 양산되었는지, 정보통신방법에서 규제가 불가능했는지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에 비해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겠다는 인식 개선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방송 출연자분이 디페이크를 재미나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큰 범죄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텔레그램앱상에서 디페이크 한다는 것은 대부분 그 여성분을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의 부모님들도 보면 그냥 재미로 한 건데 선처해 주세요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범죄 심리에서 보면 스토킹이랑 교제 폭력이랑 연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상을 보복하고자 하는, 욕보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디페이크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부분을 후속 보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뭐 했냐고 물으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제한적이예요. 기술 같은 부분을 경찰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요.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육청이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 담당자였다면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책적, 거시적, 체계적 측면에서 개선될 점에 대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보도에 초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듣고 보니까 이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일단 시청자위원님의 의견으로 접수를 하고요. 질문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진희 위원

두 달 만에 참여를 하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시시각각>이라는 토론 프로그램이 돌아왔고요.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가 새로 생겼는데요. 다들 칭찬하신 것처럼 저도 의미 있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 내컷>에서 대전의 떡볶이집 사장님 이야기를 담은 걸 봤습니다. 지난번부터 늘 느끼는 건데요. 대전MBC의 방송방향은 역시 사람 중심인 것 같습니다. 두 달 만에 다시 보니 훨씬 그런 부분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에서는 체육관에 가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 모습이 인위적이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일부러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는 등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빼려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편 경우에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시 전의면 편을 보면서도 저곳을 가봤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를 매개로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홍보하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빠르고 인위적이고 AI 등의 내용들이 넘쳐날 때 대전MBC에서는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라든가 <인생 내컷>같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잖아요. 타인의 모습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심에 있었다는 점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시시각각>은 용산초를 잊지 않고 다시 조명한 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청년 주간에 맞춰서 청년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패널들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청년 문제, 3포 세대 등 청년에 대한 평이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기성세대가 청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많은 주제들을 확산시켜서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논의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8일에는 체감 물가 널뛰기 관련해서 다뤘는데요. 여성 패널도 같이 끼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라는 영역 자체가 그럴 수는 있으나 패널 성별 비율이 적절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0주년 내용도 퀄리티있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아주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의견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동안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쟁점 사안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의제가 형성되도록 구체적인 보도를 요청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지천담 이슈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번달

에 지천담 문제에 대해 지역과 환경 등 핵심 쟁점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해당 의견이 반영되어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보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좋은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 잘 봤습니다. 창사 60주년 특별기획인 만큼 제작진이 프로그램에 힘을 준 것이 잘 드러나고, 지역 아이টে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메인 진행자인 KCM을 중심으로 매회차 게스트가 바뀌는 점도 회차마다의 개성을 살리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의 소리를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취지를 앞으로도 잘 살리면 좋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저도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보적인 정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교양을 단순히 예능으로 쉽게 풀어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독보적인 정보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살펴보니 대전의 특수성인 것 같아요. 대전은 지역이면서 국가의 중심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곳을 찾았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찾아간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독보적인 정보성에 진행자들이 현장감을 줘요. 현장에 가서 똑같이 물어보는 건데 KCM이 물어보면 발굴 현장 훼손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현장이 실감나게 느껴지게 하는 예능성이 중요함을 느낀 것 같네요. 또한 예능성이 정보성도 높여준다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콘셉트 자체가 소리를 모아서 나중에 노래로 완성 시켜내잖아요. 이런 점이 MBC 라디오의 역사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와 비슷하죠. 그런데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에는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는 어디서 전해지는 어떤 소리입니다 라고 전달하는 것과 같이 원본을 보존하는 콘셉트이었지만요.

이번 프로그램의 경우는 마지막에 손수 채집한 소리를 엮어서 배경음악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채집할 때의 장면들을 상기시키고, 완성된 곡을 그날의 초대 가수가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점이 마치 레시피 소개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레시피로 요리하면 된다고 하듯이 소리의 레시피를 채집해서 하나의 새로운 곡으로 재탄생시키는 거죠. 이런 콘셉트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콘셉트가 없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전MBC 60주년을 통해서 아주 좋은 콘셉트의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 그럼 대전 MBC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정성일 위원님이 교양적 요소에 예능적 요소를 가미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제작진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하신 말씀은 제작진에게 전달해서 격려하겠습니다.

이섬교 위원님께서 제가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칭찬해 주셨는데요. 제작진들이 만 들면서 지역 소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했어요. 지역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인 구가 준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공생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는 거고요. 어찌 보면 자꾸 다루다 보니까 국가 소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 우리만 고민하기에는 아깝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안녕하십니까>는 예산이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6개사가 같이 제작하고 있는 데 TV용으로 제작을 해냈습니다. 9월 말부터 제주MBC에서 1화가 TV로 나가는데 송출되고 나면 차례차례 유튜브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1화하고 12화는 총망라 하는 내용이기에 선별해서 TV로도 송출하는 걸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잘 활용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적하신 것처럼 고민하겠습니다.

장인순 도서관 관장님은 대전MBC에서 시청자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요 원자력의 대가 시거든요.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고 <인생 내컷>에 나오셔야 될 인물이지요. 현장 과 잘 어울리는 게스트하우스 사모님의 진솔성 있는 인터뷰 평가도 감사합니다.

세종시 전의면, 장애인체육회,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출품하면 국립 문화유산연구원 방송분을 출품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김용준 씨가 의외로 진행 실력이 있더 라고요. KCM 씨가 너무 가볍게 가는 걸 보완해 준 것 같아요. 다음 가수로는 정인 씨가 예고 됐고요. 그 다음으로 설하운, 뮤지, 현진영, 원슈타인 씨 이렇게 섭외가 돼 있습니다. 마무리까 지 잘할 수 있도록 제작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독보적 정보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작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칭찬이거든 요. 제작진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1화 2화 통편집을 권성주 부장과 전상희PD가 번갈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입사한 막내 PD가 제작 과정을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뮤직비디오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3명의 PD가 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칭찬해 주신 것처럼 더 잘 만들겠습니다.

조형찬 취재편집부장

정성일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대표적인 보도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셔서 감 사하고요. 일단 지천댐 관련해서는 최대한 집중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심층적으로 보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사가 쟁점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도를 했고 그게 아마 반응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개발과 환경의 마찰은 항상 있습니다. 댐 하나를 건설하면서 얻는 이익과 피해가 다 있 죠. 지천댐이 전국에서는 두 번째 규모인데요. 수몰되는 십 몇 가구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요. 매몰돼서 돌이킬 수 없을 생태 파괴에 방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홍수 예방, 발전 등의 개

발 효과에 대한 부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 균형적으로 보도하려 고 하는데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도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 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현 정부, 환경부, 특히나 충남도는 무조건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충남도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 준으로 신중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성과 관련인데요. 영시축제는 이장우 시장이 동구청장 때부터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 20~30억 정도 예산이 들었고요. 이번에 70억, 80억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100억, 200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성과를 부풀린 측면이 있어 보يا기는 하지만 김민숙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단순 보도하기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숙 의원은 휴대폰과 여러 가지 대중교통 이용을 근거로 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축제 방문객 수를 계산할 때는 나름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계산 수식이 있거든요. 경제성과 부분도 틀렸다 라고 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보문산 개발 등 지역 이슈들의 관련 보도는 지자체장 추진 과정과 환경단체 반대 등을 엮어 몇 차례 보도했고 집중 취재로도 다룬 적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개발의 필 요성과 효과 못지않게 환경 파괴의 심각성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취재하겠습니다. 또 술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이자 제도권 의 보호에서 소외돼 있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는 말씀하신대로 더욱 신 경 써서 보도함으로써 공영 방송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재난 보도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 보도가 아니라 추적 전에도 현장이 어떤지 가봤고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논산 7월 폭우 등도 있었지만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에 그 치는 경우가 많죠. 만약 하수가 잘못됐든지 공사 때문에 없던 수해가 갑자기 생겼든지 이 런 경우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요즘 100년, 2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1시간에 100mm, 80mm 이상 오거든요. 이런 것은 속수무책인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지형적인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한 환경 변화도 있고요. 갑자기 저지대가 되기도 하는 등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넣기에는 보도에 한 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심층적인 보도를 계속 팔로우하겠습니다.

<시시각각>관련 용산초와 독립기념관장 논란이 있을 때도 보도의 방향을 바꿔서 예민하게 대 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 패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늘 저희도 아쉬운 부분입니 다. 여성 패널이 너무 없다고 해서 찾아보자고 했는데요. 본인들이 고사하신 경우도 있고 특

정 분야에 따라서는 인력 풀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성 패널 위주로 일부러 제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좀 더 신경 써서 균형 있게 출연할 수 있도록 제작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섭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 무궤도 트램 부분은 제가 대전시에 출입할 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용어를 이렇게 썼나 봐요. 원래 도시철도는 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장우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과 더불어 3, 4, 5호선을 같이 하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3, 4, 5호선은 도시철도가 아니라 BRT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차량만 스위스에서 3량을 붙인 건데 공약 파기나 수정을 해야 한다고 대전시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의 실정이나 비용,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해서 그렇다고 하면 깔끔한데 갑자기 무궤도 차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차량 자체에 궤도가 원래 없는건데 무궤도 차량이 뭐냐고 그랬더니 답을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궤도 트램이라고 했는데 그 때도 트램이면 궤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답을 못했구요. 용어 자체만 놓고 봐도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요. BRT하고 다른 건 앞뒤가 다 똑같아서 돌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갔던 게 뒤가 다시 앞이 돼서 운행되는 거 있잖아요.

트램 관련해서는 김광연 기자가 이달 말 대전시장과 유럽 출장을 같이 가는데 무궤도 차량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취재할 예정입니다. 혼선이 없게 잘 짚어주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법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도시철도법이 있고 BRT 버스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차량을 오래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약 파기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심층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AI 텔레그램 부분도 보도를 계속하고 싶었는데 아시겠지만 가해자들 대부분 학생입니다. 특히 중학생이 많고요. 텔레그램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용하고요. 또 본인들은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같은 여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분 노출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신중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총평을 해주셨는데요. 말씀 감사하고 최대한 수용해서 반영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뉴미디어 유튜브 부문을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이는 라디오가 대세지만, 보이지 않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유튜브에 말씀하신 대로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채널이 7개가 있습니다. 기존 지상파 프로그램들을 등재하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게 있거든요. 현재는 리뉴얼을 하는 시기입니다. 시사라든가 인물, 탐구 영역까지 다양한 소재로 리뉴얼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다음 달쯤이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일 모레 저희 창사 6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시청자 중심으로 60주년 행사를 치르고 싶었고요. 그래서 기관장이라든가 정치인들은 일체 초대하지 않았습니니다. 행사가 아니라 잔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전MBC와 60년 동안 함께 인연을 맺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감동을 받으신 분들을 모시기 위해 시청자 사연 공모도 했고요. 시청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청자 위원이 중심이 됩니다. 역대 시청자위원장님들도 초대를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장인순 박사님도 오실 것이고요.

대전MBC와 한화그룹과 함께 하는 한빛대상 수상자 중에 대표성 있는 분들도 모셨습니다. 수상자이신 이봉주 선수, 나태주 시인, 성심당 임영진 회장도 오십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도 하고요. 올해 처음 개최한 전국 창작동요대회 우승팀도 와서 내일 첫 공연을 선보일 것입니다. 가수 박창근씨도 옵니다. 위원님들도 시간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님께서 대전MBC의 콘텐츠는 사람 중심이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감동적이고 창사 60주년을 맞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힘이 나는 멘트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정성일 위원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라디오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긴 한데요. 일반 공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연결은 되는데 유튜브 자체로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홈페이지에서 연결하는 용도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굳이 전체공개를 안 했다는 거는 올린 분이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조회 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잖아요. 온라인에서 조회 수가 나온다는 거는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니까요. 지속적으로 하시면 잘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은표 경영국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위원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사장님 마무리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MBC의 역사가 사람 중심의 역사인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사람 중심의 대전MBC 방송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중재 사장

창사 60주년을 맞아 이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반대로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저희가 느껴야 될 책임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60주년을 맞아서 저희 임직원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다듬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상으로 9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